

研究論文

# 왕필의 주효론과 다산의 괘주론 비교

유 문 상\*

I. 서론	IV. 결론
II. 왕필의 주효와 다산의 괘주 개념	<참고문헌>
III. 주효와 괘주의 기능	<국문요약>

## I. 서론

주역의 술한 괘상의 일부가 문자로 표시된 것이 괘사와 효사이지만, 그 전승의 과정에서 가감이 이루어져 매우 난해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괘·효사의 의미를 더욱 정밀하게 그려내기 위해 총 7종 10편으로 구성된 십익(十翼), 즉 「역전」이 만들어지게 된다. 주역에 「역전」이 편입되면서 주역은 일정한 철학적 체계로 개편되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계사전」에 등장한 태극이라는 관념이다. 「계사전상」에는 “역에 태극이 있어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4상을 낳으며, 4상이 팔괘를 낳는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고 하였다. 논자에 따라서는 태극을 세계의 생성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서법의 한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구절에서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태극에서 팔괘에 이르는 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음과 양으로 표현되는 변역사상이다.

---

\* 천안중앙고등학교 교사, 윤리교육 전공(yms88@hanmail.net).

본래 「역경」의 괘획은 음양 개념이 기호화 된 체제이지만 그 은밀함과 난해성으로 인하여 괘상과 효상을 해석해 내는 일은 「역진」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역진」은 「계사전상」의 “한 번 음이고 한 번 양인 것을 도라고 한다(一陰一陽之謂道)”는 명제를 철학의 기초로 삼았는데, 이럼으로써 일음일양의 대대 관계로서 주역을 해석해 내고 세계를 보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역진」의 철학사상을 기반으로 「역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취상설, 취의설, 효위설이 있다. 이 중 효위설은 전체 괘상에서 효상이 처한 위치를 가지고 괘효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그 이론의 기초는 바로 음과 양으로 표현되는 변역사상이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왕필의 주효론(主爻論)과 다산의 괘주론(卦主論)은 효위설의 한 분파로서 난해한 주역의 역사를 올바르게 해독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효위론의 철학적 진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왕필의 주효론과 다산의 괘주론은 주효와 괘주의 설정과 기능성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상호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요청되고 있으며 본 논고도 이와 같은 의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주효론에 관하여 연구한 업적은 경방과 왕필의 역학 연구에서 몇 번 시도된 바 있다.<sup>1)</sup> 그러나 다산의 괘주론은 다산의 역학에 관한 많은 논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미진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고를 통하여 왕필과 다산이 주역을 보는 관점이 특징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역 해석의 정밀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필자는 기대하고 있다.

효위설의 효시는 왕필과 다산 그 이전인 경방(京房, 기원전 77~기원전 37)으로 올라간다. 경방의 역학은 괘의 배열을 음양(陰陽)의 소장(消長) 원리에 근거하여 배열하고 있는 점이 특색인데, 경방은 복(復)괘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양이 한 괘의 주가 된다(一陽爲一卦之主)”<sup>2)</sup>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경방의 이러한 표현은 괘변을 말하고자 한 것이지만 이후의 효위론에서 경방의 이 논리를 수용하고

1) 윤태현은 「京房易의 연구」(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0)에서 경방의 주효 관념을 다루었고, 임채우와 이원태는 각각 「王弼 易哲學 研究」(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와 「王弼과 伊川の 義理學 比較 연구」(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8)에서 괘의와 관련하여 왕필의 주효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세동은 「朱子 <周易本義> 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에서 왕필과 비교되는 주자의 주효관을 취급하고 있다.

2) 『文淵閣四庫全書』 808-453, 「京氏易傳」, “六爻成卦之體, 總稱也。月一陽爲一卦之主。與震爲飛伏。”

있으므로 경방이 그 단서를 열었다고 봄이 정확할 것이다. 이후 효위설은 동한의 순상(荀爽, 128~190)이 음과 양의 승강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주역을 해석하게 됨으로써 체계를 잡게 된다. 일례를 들어보면, 순상은 둔(屯)괘 「단진」의 “天造草昧”를 주해하기를 “양이 움직여 밑에 있으면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만물을 만들고 생겨나게 한다”<sup>3)</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양이 위에서 초(初)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에 착안하여 「단진」을 해석해낸 양태인데 바로 효위설의 전형이다. 효위설은 한말 삼국시대의 우변(虞翻)에 이르러 음양승강설에 기초한 괘변론으로 수용되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예컨대, 그는 수(隨)괘의 “元亨利貞无咎”를 주해하기를 “비(否)의 상(上)이 초(初)로 갔다. 강(剛)이 유(柔) 아래로 오고 초(初)와 상(上)이 바름을 얻었다”<sup>4)</sup>로 하고 있다. 우변의 이러한 주해는 괘변론에서 벽괘인 비(否)괘로부터 수(隨)괘로 음양이 승강하는 형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후 당의 이정조(李鼎祚)는 「주역집해(周易集解)」에서 경방이 사용한 ‘괘주’ 념을 사용하여 음양승강에 따른 주해를 하고 있다. 그는 이(履)괘 六三의 「소상진」인 “咥人之凶位不當也”를 이렇게 주해한다. “육삼이 이(履)괘의 주(主)가 된다. 몸이 기쁘게 건과 응하고 아래는 유(柔)가 있고 위에는 강(剛)이 있어서 존비(尊卑)가 도에 합치된다.”<sup>5)</sup> 그러나 이정조는 괘주 개념을 사용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용례가 타괘에서는 거의 없어서 그 의의를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후 효위설은 위(魏)의 왕필(王弼, 226~249)과 조선의 다산(茶山, 1762~1836)에 의하여 큰 전환을 맞게 된다. 왕필과 다산은 효위에 따른 괘체내에서의 기능적 역할을 일정한 이론적 체계하에 전개하여 역사(易辭) 해석의 한 지평을 열게 되었다. 왕필은 경방과 우변 등에서 사용된 괘주라는 명칭을 주효로 바꾸어 사용했으며<sup>6)</sup> 어느 하나의 주되는 효가 전체의 괘의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왕필의 이러한 주효론은 기존의 효위설이 일정한 철학적 체계 없이 역해에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주효와 괘의간의 기능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선에서는 다산이 주효 개념 대신 경방과 이정조 등이 사용한 괘주(卦主)로 바꾸고는

3) 『易經集成』 十一, 「周易集解」(臺北: 成文出版社有限公司, 中華民國 65, 1976), 86쪽, “陽動在下 造生萬物, 於冥昧之中也.”이하 출판사, 연도 생략.

4) 『易經集成』 十一, 「周易集解」, 215쪽, “否上之初, 剛來下柔, 初上得正.”

5) 『易經集成』 十一, 「周易集解」, 157쪽, “六三爲履卦之主. 體說應乾, 下柔上剛, 尊卑合道.”

6) 왕필도 괘주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離괘 육이(六二)를 ‘괘주(卦之主)’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각적인 분석을 하게 된다. 다산이 주창한 괘주론은 괘의를 표방하는 괘사(단사)와 단전보다는 효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왕필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둘 다 역사의 명쾌한 해석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비교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왕필의 주효론과 다산의 괘주론이 그 목적에 있어서는 역사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적용의 범주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럼으로써 왕필과 다산의 역학에 관한 올바른 이해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II. 왕필의 주효와 다산의 괘주 개념

### 1. 왕필의 주효

지금까지 『주역』을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으로 대별되어 왔다. 상수역학은 순상(荀爽, 128~190)과 우번(虞翻, 170~239) 등을 위시한 한대(漢代)의 역학가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의리역학은 바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왕필로부터 비롯된다. 왕필은 한 대의 번잡한 상수의 관념을 탈피하여 주역의 의리를 발명하는데 진력하였는 바, 주효론은 왕필의 의리역학에서 그 특징적 요소가 되고 있다. 주효론은 효위설에서의 발전적 개념이다. 효위설은 전체 괘상에서 효상(爻象)이 처한 위치를 가지고 괘효사를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효위설은 음(유)과 양(강)의 승강왕래(升降往來), 당위(當爲), 상응(相應), 득중(得中)으로 괘효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주효론에서 괘주를 지칭할 때 당위, 상응, 득중을 고려하는 일면이 있으며, 다산의 괘주론에서는 음(유)과 양(강)의 승강왕래를 고려하여 괘주를 정하기도 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주효론이나 괘주론은 그 바탕에 기존 효위설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필의 주효론에서 중심적인 견해는 하나의 효를 위주로 삼는다는 견해이다, 즉 한괘 전체의 의의가 주로 그 속의 어떤 한 효의 의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무릇 단(象)이란 무엇인가? 한 괘의 체를 통론하여 그 유래된 바의 주효를 밝

히는 것이다. 무릇 중다(衆多)한 것은 중대한 것을 다스릴 수 없다. 중대한 것을 다스리는 것은 지극히 과소(寡少)한 자이다. 무릇 천하의 동하는 것을 제어하는 자는 ‘곧은 하나(貞夫一)’이다. 그러므로 중대한 것이 모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주장하는 바가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동하는 것들이 모두 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근원을 따져 보면 결코 둘이 없기 때문이다. 사물은 멋대로 그런 것이 없고 반드시 그 이치에서 유래한다. 통일하면 宗이 있고 모이면 元이 있다. 그러므로 번잡하여도 난잡하지 않고 중다하여도 미혹되지 않는다. 따라서 6효가 상착(相錯)하여도 한효로써 명백해지며, 강유(剛柔)가 상승(相乘)하여도 주효를 세워 정할 수 있다.<sup>7)</sup>

왕필은 사물의 이치를 괘에 적용하고 있다. 중대한 것을 다스리는 자는 과소한 것이고 동하는 것을 다스리는 자는 곧은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한 괘에서 전체의 괘상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한 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하면 1괘 6효의 변화가 복잡하여 아무 질서가 없는 듯하지만 사실은 중심이 되는 주효에 의해 6효의 변화 및 의의가 규정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주효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왕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잡다한 것들에서 덕을 가려내고 시비(是非)를 가리는 것이라면 그 중효(中爻)가 아니면 갖추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통일된 것으로부터 찾으면 사물이 비록 중다하더라도 하나로써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본으로써 관찰하면 의리가 비록 널리 있더라도 하나의 명칭으로 거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무릇 적은 것은 다수가 존귀하게 대한다. 과소한 것은 중대한 것이 받든다. 한괘가 5양1음이면 1음이 주가 된다. 5음1양이면 1양이 주가 된다.<sup>8)</sup>

왕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주효를 보고 있다. 첫째는 중효 즉 2효와 5효를 본다.

- 
- 7) 樓字烈校釋, 『王弼集校釋』, 「周易略例」, 明彖(臺北: 華正書局有限公司, 中華民國八十一年), 591쪽, “夫象者何也? 通論一卦之體, 明其所由之主者也。夫衆不能治衆, 治衆者至寡者也。夫動不能制動, 制天下之動者貞夫一者也。故衆之所以得咸存者主必致一也, 動之所以得咸運者原必无二也。物无妄然, 必由其理, 統之有宗, 會之有元, 故繁而不亂, 衆而不惑, 故六爻相錯, 可舉一以明也。剛柔相乘, 可立主以定也。” 이하 출판사와 연도는 생략.
- 8) 樓字烈校釋, 『王弼集校釋』, 「周易略例」, 明彖, 591쪽, “夫雜物撰德, 辯是與非, 則非其中爻, 莫之備矣。故自統而尋之, 物雖衆, 則知可以執一御也。由本以觀之, 義雖博, 則知可以一名舉也。”

본래 「계사전(繫辭傳)下」에 나오는 ‘중효’는 상수역학자들이 호체설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2효부터 5효까지를 지칭한 것이다. 그러나 왕필은 중효를 2효와 5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왕필이 효의 위치에 따라 주효를 결정하는 논리는 「계사전상」에 그 근거가 보인다. 「계사전상」에는 “귀한 신분과 천한 신분을 구별함은 위치에서 하고, 작은 것과 큰 것을 정하는 것은 괘에 들어있다”<sup>9)</sup>라고 되어 있다. 왕필은 이러한 「계사전 상」의 사유에 의거 괘내에서의 효의 위치에 따라 주되는 효를 특정하려 했으며 그것이 2효와 5효라는 중효로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음효와 양효를 본다. 전체 괘의 6효 중에서 음효가 하나이거나 양효가 하나이면 그 음효나 양효가 주효로 된다. 64괘 중에서 5음1양의 괘는 사(師), 비(比), 겸(謙), 예(豫), 박(剝), 복(復)이고 5양1음의 괘는 소축(小畜), 이(履), 동인(同人), 대유(大有), 괘(夬), 구(姤)로 각각 여섯 개씩이다. 이 괘들의 괘의는 하나인 음효나 양효의 효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왕필이 하나의 음효와 양효가 주효라는 관점은 「계사전하」의 “양괘는 음이 많고, 음괘는 양이 많다…그 덕행은 어떠한가? 양은 하나가 군주이고 둘이 백성이니 군자의 도요, 음은 둘이 군주이고 하나가 백성이니 소인의 도이다”<sup>10)</sup>라는 구문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왕필의 “적은 것은 다수가 존귀하게 대한다. 과소한 것은 중대한 것이 받든다”는 표현은 결국 위의 「계사전하」의 군자의 도와 소인의 도를 부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왕필의 주효론은 전통적인 효위론처럼 구오(九五) 중심으로 괘효의 구조를 고정해 두지 않는다. 왕필의 주효는 하괘 속에도 있고(사괘 같은 경우), 음효도 가능하다(履괘 같은 경우). 오직 여러 효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자질과 조건을 가진 효면 가능하다. 만일 정치적인 각도에서 비유한다면 한역은 천(天)이 정한 천자만이 인주(人主)가 되고 왕필은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인주가 된다는 논리이다. 왕필은 존위(尊位)인 오효가 괘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존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못 효를 거느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하위에 있는 신하라 하더라도 인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를 괘주로 간주함으로

9) 『周易』, 「繫辭傳 上」(學民文化社, 1990), 235쪽, “列貴賤者, 存乎位. 齊小大者, 存乎卦.” 본 도서는 伊川易傳과 周易本義가 합본되어 있다.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계사전은 4권에 있다. 이하 권수와 쪽수를 4-235로 표시하고 출판사와 연도는 생략한다.

10) 『周易』 4-434-6, “陽卦多陰, 陰卦多陽…其德行 何也? 陽一君而二民, 君子之道也. 陰二君而一民, 小人之道也.”

써 한 대외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표현하였다.<sup>11)</sup>

왕필의 ‘중효’ 혹은 ‘음효’와 ‘양효’에 의한 주효의 원칙적 관점은 정자와 주자에게도 답습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괘의 주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먼저 중효를 주효로 설정한 것을 보면, 괘(夬)의 구오(九五)를 주효로 보고 있는 것은 왕필 정자 주자 모두 공통적이다. 그러나 관(觀)구오(九五)를 왕필은 주효로 보고 있으나 정자와 주자는 부정하고 있으며 비(費)육오(六五)를 왕필과 주자는 주효로 보나 정자는 육이(六二)를 주효로 보고 있다. 중효에 의한 주효의 관점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명이(明夷)에 있어서 왕필 정자 주자 모두 육이나 육오를 주효로 보지 않고 상육(上六)을 주효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극히 어두운 지경’에 상육(上六)이 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괘명과 괘의를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효인 경우 중효가 아니더라도 주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하나의 음효나 양효 즉 일음일양의 원칙에 의거 주효로 설정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豫)에 있어서 왕필 정자 주자 모두 구사(九四)를 주효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師)에 있어서 왕필과 정자는 하나의 음효나 양효라는 기준에 의거 구이(九二)를 주효로 보고 있으나 주자는 중효의 관점에 의거 육오(六五)를 주효로 보고 있다. 비(比)구오(九五)는 왕필만 주효로 삼고 있으며 정자와 주자는 언급이 없다. 또 복(復)초구(初九)는 주자는 주효로 보나 왕필 정자는 언급이 없다. 이와 같이 중효와 일음일양에 따른 주효의 설정은 학자의 관점에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중효에 해당되는 2와 5획의 주체적 기능을 괘에 따라 다르게 보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중효에 따른 주효 설정과 일음일양에 따른 주효 설정의 우선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자의 경우를 보면 괘주 관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모두 14괘인데 이중 일양오음이나 일음오양의 괘에서 괘주를 지적한 것은 단지 복(復)괘 하나뿐이고 중효를 괘주로 삼은 것은 관(觀)—오효, 구(姤)—오효, 혁(革)—오효, 중부(中孚)—오효, 비(費)—오효, 몽(蒙)—이효, 송(訟)—이효의 7괘이고 나머지 둔(屯), 손(巽), 수(隨), 무망(无妄), 항(恒), 귀매(歸妹) 등 6괘는 그 외의 효를 괘주로 삼고 있

11) 林采佑, 「王弼 易 哲學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95), 99-100쪽 참조

다.12) 이런 점으로 볼 때 주자에 이르러서는 주효(괘주)의 설정이 일정한 체계 없이 운용된 것으로 분석되며 역해에서 그 기능적 논거가 취약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효론의 가장 큰 약점은 주역 역해의 전반적 기저로서 작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왕필이 그의 『周易注(주역주)』에서 주효임을 명기한 경우는 총 64괘 중 절반도 못되는 27괘(42.2%)에 불과하며, 이 중 상경 30괘 중에서는 18괘가(60%), 하경 34괘 중에는 불과 9괘(26.5%)만이 주효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왕필이 『周易略例(주역약례)』에서 주효의 대표적 경우로 들었던 일양오음이나 일음오양의 12괘 중에서 10괘를 주효로 명기하고 있어서 그나마 일정한 원칙은 고수하려 한 흔적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10괘 중 박(剝)과 쾌(夬)의 경우는 각각 상구 상육이 주효가 되어야 하지만 모두 오효로서 주효로 삼고 있어서 역시 일관성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13) 이와 같이 왕필의 주효론은 통론하여 볼 때 주효의 설정에 있어서 일관된 관점이 없이 운영된다는 점과 실제적으로 주효에 의한 역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하여 왕필의 주효론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 2. 다산의 괘주

괘주 관념을 최초로 사용한 학자는 경방이다. 경방의 괘주는 팔궁괘변에 근거하여 점단의 주체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경방의 현존하는 『京氏易傳(경씨역전)』에 의하면, 팔궁괘변이란 건·곤이 여섯 자식을 낳아 8괘를 이루는 원리를 모방하여 8괘로부터 64괘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방법은 건(乾)·진(震)·감(坎)·간(艮)·곤(坤)·손(巽)·이(離)·태(兌)를 8궁의 본체로 하고 그것을 8순괘(純卦)라 부른다. 8순괘의 초효가 변해 이루어진 괘를 1세괘, 두 번째 효가 변해 이루어진 괘를 2세괘, 세 번째 효가 변해 이루어진 괘를 3세괘라 하며, 네 번째 효가 변하여 이루어진 괘를 4세괘, 다섯 번째 효가 변해 이루어진 것을 5세괘라 한다. 5세괘의 상태에서 상호가 변하지 않고 네 번째 효가 변해 이루어진 괘를 유혼괘(遊魂卦)라 부르고, 유혼괘의 상태에서 내괘 3효가 변해 이루어진 괘를 귀혼괘(歸魂卦)라 부른다. 예를 들면, 8궁괘 중 건괘의 괘변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2)李世東, 『朱子 <周易本義>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6), 107쪽 참조.

13) 본 수치는 林采佐, 『王弼 易 哲學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95), 104쪽에서 인용.



8궁	8순괘	1세	2세	3세	4세	5세	유혼	귀혼
乾宮	乾	姤	遯	否	觀	剝	晉	大有

경방은 괘주를 달리 세(世)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세효를 4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위의 8순괘의 상호가 세효이며, 둘째는 1·2·3·4·5세괘는 각기 그 변화가 미치는 효를 세효로 하고, 셋째, 유혼괘는 제4효를 세효로 하며, 넷째, 귀혼괘는 제3효를 세효로 한다.<sup>14)</sup> 경방의 괘주 관념은 괘변의 주가 되는 효에 착안하여 설정한 것으로 매우 깔끔하고 정연한 것이나 치명적 약점은 역경의 주석과는 별개로 논의된 것이어서 주역 해석의 전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왕필의 주효와 다산의 괘주가 주역 해석의 정밀성을 위하여 고찰되고 있다는 점과는 분명 다른 차원의 관념인 것이다.

다산의 괘주론은 경방이 세효로서 표현한 괘주 개념을 받아들이고는 왕필의 주효론을 부분적으로 배척내지는 수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관념을 도입하고 있다. 먼저 다산은 일단 중효에 의한 왕필의 주효 관념은 부정하고 있다. 전설한 바와 같이 중효의 개념은 효위설을 수용한 것인데, 다산도 효위설에 의거하여 중괘(重卦)의 효의 위치에 따른 명칭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위치에 따른 명칭은 4가지가 있다. 하나는 삼재(三才)의 위치인데, 1·2는 땅이고, 3·4는 사람이고, 5·6은 하늘이다. 두 번째는 이기(二氣)의 위치인데, 1·3·5는 양이고 강(剛)이며, 2·4·6은 음이고 유(柔)이다. 세 번째는 귀천(貴賤)의 위치인데, 1·2는 백성이고 3·4는 신하이며, 5는 군주이고 6은 하늘이다. 네 번째는 내외(內外)의 위치인데 1·2·3은 아(我)이고 4·5·6은 적(敵)이 된다.<sup>15)</sup>

귀천의 위치에 따르면 5는 나라 일을 책임지는 군주가 된다. 또 하괘에서는 2가 비록 5와 같은 인군의 위치는 아니지만 하괘의 가운데[中] 있기 때문에 중정한 덕

14) 高懷民(著)/신하령·김태완(공역), 『상수역학』(신지서원, 1994), 169~171쪽 참조

15) 『與猶堂全書』 2集 37卷, 『周易四箋』, 讀易要旨(景仁文化社, 1970), 309쪽, “位之名有四, 其一曰三才之位, 一二地, 三四人, 而五六爲天位, 是也. 其二曰二氣之位, 一三五爲陽爲剛, 二四六爲陰爲柔, 是也. 三曰貴賤之位, 一二爲民, 三四爲臣, 五爲君, 六爲天, 是也. 四曰內外之位, 一二三爲我, 四五六爲敵, 是也.” 이하 출판사와 연도는 생략하고 『與猶堂全書』 2-37-309 형식으로 표기.

이 있으므로 아래에 있는 대인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효상을 갖고 있는 것과 괘의 주체와는 다산의 역학에서 엄밀히 구별된다. 예를 들면 건(乾)구이(九二) 효사에 대한 주해에서 “삼재(三才)의 지위로 말하면 2는 지면이다. 지면을 밭이라고 하니 용이 밭에 있음을 보는 것이다(三才之位 二爲地面 地面曰田 見龍在田也)”라 하여 삼재의 위치에 따른 주해를 하고는 이어서 “5는 군주의 자리이고, 3, 4위는 신하의 자리인데, 지금 성인이 아직도 2의 자리에 있으니 용이 밭에 있는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잠시 그쳐 등용되지 않는 것이다(五爲君位 四三爲臣位 而今茲聖人尙在二位 如見龍在田 此時舍而不用也)”라 하여 귀천의 위치로서 주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산은 이렇게 역학에서 위치에 따른 해석 즉 변위(辨位)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건(乾)의 九二(구이)나 구오(九五)를 주효(다산에게는 卦主)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비(費)괘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왕필은 비괘의 육오(六五)를 주효로 인정하지만 다산은 중효와는 관계 없는 상구(上九)를 괘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산은 중효의 개념에 의한 왕필의 주효론은 배제하지만, 하나의 음효나 하나의 양효가 주효(다산에게는 卦主)가 되는 주장은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사(師)는 일음오양의 괘로서 구이(九二)가 卦主가 된다. 구이(九二) 효사는 “在師中 吉 无咎(군대의 중앙에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이다. 여기에 대한 다산의 역해는 다음과 같다.

사(師) 구이(九二) 효사의 주해: 괘가 복(復)과 박(剝)에서 왔다. 복과 박의 때에 역시 일양(一陽)으로써 그 여러 음을 거느리나, 혹 실수하여 내려가거나 혹 실수하여 극도로 하면 모두 무리를 제어할 수가 없다. 사(師)로 옮겨 간다면 장차 중(中)에 머물러서 곤의 무리를 제어하니 군대의 가운데 있는 것이다.<sup>16)</sup>

다산의 이러한 주해는 왕필처럼 중대한 것을 다스리는 자는 과소한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여 사(師)의 구이를 卦主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산은 하나의 음효나 양효가 주효가 된다는 왕필의 주장을 수용하고는, 그 외에 또 다른 卦主의 관념인 음양승강한 획을 대상으로 하는 卦主론을 도입한다. 본

16) 『與猶堂全書』 2-38-335, 『周易四箋』, 師九二, “卦自復剝來。復剝之時, 亦以一陽帥其衆陰, 然或失則卑, 或失之亢, 皆不足以馭衆。移之爲師則將乃居中, 以馭坤衆, 在師中也。”

래 다산 역학은 ‘추이론(推移論),’ ‘물상론(物象論),’ ‘호체론(互體論),’ ‘효변론(爻變論)’을 지칭하는 소위 역리사법(易理四法)을 특징으로 한다. 이 중 추이론은 64괘를 14개의 벽괘(辟卦)와 50개의 연괘(衍卦)로 구분하여 연괘가 벽괘로부터 음양승강의 원리에 의거 괘변을 한다는 이론이다. 14벽괘는 복(復)·임(臨)·태(泰)·대장(大壯)·쾌(夬)·건(乾)·구(姤)·돈(遯)·비(否)·관(觀)·박(剝)·곤(坤)·중부(中孚)·소과(小過)인데, 벽괘는 부모의 괘인 건(乾)과 곤(坤)에서 음양소장에 따라, 그리고 연괘는 벽괘에서 음양승강 원리인 추이지법에 의하여 이동한 효는 모두 괘주가 된다. 다만 중부(中孚)와 소과(小過)는 벽괘이지만 음양소장의 원리가 아닌 각각 대과(大過)와 이(頤)의 교역에 의거 괘가 변화한 것이어서 승강된 효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괘주가 없으며 태(泰)와 비(否)는 음획과 양획이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유래된 벽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역시 괘주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괘는 이론상으로는 부모의 괘에 해당되는 건괘와 곤괘, 중부와 소과, 태와 비의 6괘를 제외하고는 58괘가 괘주에 해당되는 효가 있다. 앞에서 논의한 비(賁)괘의 경우 비(賁)는 벽괘인 태(泰)에서 구이(九二)가 상(上)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비록 왕필은 육오(六五)를 주효로 보지만 다산은 상구(上九)를 괘주로 보고 있다. 또 다산의 역학에서는 괘주가 복수로 나올 수도 있다. 임(臨) 구이(九二)의 주해에서 다산은 초구(初九)와 구이(九二)를 모두 괘주로 보고 있다(兩剛爲卦主也). 이것은 벽괘인 임(臨)의 양획 모두 부모의 괘인 건괘(乾卦)에서 온 것에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관(觀)은 비록 5와 6획이 모두 건(乾)에서 나왔지만, 상구(上九)의 효사에 “그것이 살아감을 보다(觀其生)”에 의거 ‘기(其)’는 주체가 아닌 구오(九五)를 지칭한다 하여 상구(上九)만을 괘주로 보고 있다. 함(咸)괘는 벽괘인 비(否)에서 3이 상(上)으로 간 것일 수도 있고 상(上)이 3으로 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괘주가 3과 상(上) 모두가 된다. 대과(大過)에서는 벽괘인 대장(大壯)으로부터는 5가 초(初)로 간 것이고 벽괘인 돈(遯)으로부터는 2가 상(上)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초(初)와 상(上) 모두 괘주이다. 명이(明夷)의 경우 벽괘인 임(臨)에서 2와 3이 서로 맞바꾸고 어조가 괘주임을 밝히고 있다 하여 육이(六二)와 구삼(九三) 모두 괘주로 보고 있다. 괘주의 설정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이유는 다산이 왕필과 다르게 음양승강에 의하여 이동된 효를 괘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음양승강은 결국 음획과 양획이 서로 자리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괘에 따라서 음효나 양효 아니면

둘다 괘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다산이 괘주의 적용을 모든 괘에 하는 것은 아니다. 다산은 벽괘 중에서 복(復)·대장(大壯)·괘(夫)·돈(遯)·박(剝)의 5괘 그리고 연괘 중에서 소축(小畜)·이(履)·동인(同人)·수(隨)·서합(噬嗑)·감(坎)·이(離)·항(恒)·진(晉)·간(艮)·점(漸)·귀매(歸妹)·태(兌)·환(渙)·기제(既濟) 등의 15괘는 괘주에 대한 언급을 안하고 있다.<sup>17)</sup> 결국 다산의 괘주론은 38괘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59.4%) 이를 세분하면 벽괘에서 3개,<sup>18)</sup> 하나의 음이거나 양획인 괘 5개,<sup>19)</sup> 음양승강에 따른 괘 30개<sup>20)</sup>가 된다. 이처럼 다산은 왕필이 주효론을 적용한 42.2%보다 상당히 많이 역해에 괘주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 괘주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음양승강은 적용 대상 괘 중 78.95%(30/38)에 해당된다. 또 벽괘에서 괘주가 설정된 경우도 정확히는 음양소장이지만 괘변(다산은 추이라는 표현을 쓴다)이라는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넓게는 음양승강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음양승강은 86.8%(33/38)가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의 괘주는 음양승강에 착안하여 설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이러한 점에서 왕필의 ‘중효’나 ‘하나의 음이나 양’에 의한 주효관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다.

다산의 괘주론은 그의 ‘행사(行事)’ 윤리관과 관련이 깊다. 행사 윤리관이란 일과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실천윤리를 말하는 것인데, 다산의 경학에서 주론 심성론과 연관하여 강조되고 있다. 다산은 “인의예지는 비유하면 꽃과 열매 같아서 그 근본은 마음에 있다.”<sup>21)</sup> 즉 “측은(惻隱)·수오(羞惡)의 마음은 안에 있고 인의(仁義)는 밖에서 이루어지며, 사양(辭讓)·시비(是非)의 마음은 안에 있고 예지(禮智)는 밖에서 이루어진다”<sup>22)</sup>고 하여 인의예지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사(行事)를 한 후에야 후천적으로 그 존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

17) 괘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후술하는 ‘유동’을 적용 안 하는 것은 아니다. 小畜, 履, 坎, 離, 艮은 부분적으로 ‘유동’을 수용하고 있다.

18) 臨·觀·姤괘이다.

19) 師·比·大有·謙·豫괘이다.

20) 屯·蒙·需·訟·蠱·賁·无妄·大畜·頤·大過·咸·明夷·家人·睽·蹇·解·損·益·萃·升·困·井·革·鼎·震·豐·旅·巽·節·未濟괘이다.

21) 『與猶堂全書』 2-7-157, 『論語古今註』, “仁義禮智譬則花實, 惟其根本在心也.”

22) 『與猶堂全書』 2-7-157, 『論語古今註』, “惻隱羞惡之心, 發於內, 而仁義成於外; 辭讓是非之心, 發於內, 而禮智成於外.”

설과하였다.<sup>23)</sup> 다산은 『역』을 만든 목적도 “성인이 하늘의 명을 칭하여 그 뜻을 따르는 것”<sup>24)</sup>하여 역시 실천적, 경험적 관점에서 『역』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괘주론은 괘주가 본래 생래적, 혹은 선험적으로 정해진 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며 실천적으로 그 괘주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효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다산의 행사 윤리의 맥과 상통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산이 성리학을 비판한 가장 큰 이유는 그 관념적이고 소모적 논쟁이었다.<sup>25)</sup> 이런 점에서 다산의 괘주론은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안목의 또 다른 성찰이라 할 수 있다.

### III. 주효와 괘주의 기능

#### 1. 주효의 괘의의 결정

주효의 의의는 그 중효나, 혹은 주도하는 1효를 거론하여 괘의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sup>26)</sup> 사실 중효가 주효로 될 수 있는 근거는 「계사전(繫辭傳)下」에 있다. 「계사전 하」에는 “무릇 잡다한 것들에서 덕을 가려내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라면 그 중효가 아니면 갖추어 있지 않다(若夫雜物撰德, 辯是與非, 則非其中爻不備)”라고 하여 괘체에서 덕과 시비에 관한 괘의를 보려면 중효를 살펴야 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음이나 양의 1효를 주효로 보는 근거는 역시 「계사전 하」의 “양괘는 음이 많고, 음괘는 양이 많다(陽卦多陰, 陰卦多陽)”는 구절에 있다. 이 「계사전 하」의 구절은 결국 괘체에서 적은 수의 음과 양을 위주로 양괘, 혹은 음괘를 판단해야 하는 의미로서 결국 왕필의 “적은 것은 많은 것이 귀중히 여기는 바이다(夫少者, 多之所貴也)”라는 사유를 낳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왕필이 주효의 개념으로서 괘를 해석한 실례를 보자.

23) 『與猶堂全書』 2-5-105, 「孟子要義」, “仁義禮智之名, 成於行事之後.”

24) 『與猶堂全書』 1-11-222, 「易論」, “易何爲而作也? 聖人所以請天之命而順其旨者也.”

25) 『與猶堂全書』 1-11-231, 「五學論一」, “東振西觸, 捉尾脫頭, 門立一幟, 家築一壘, 畢世而不能決其訟, 傳世而不能解其怨.”

26) 樓字烈校釋, 『王弼集校釋』, 「周易略例」, 明象, 校釋, 594쪽. “可立主以定也, 意爲可以舉出其中起主導作用之一爻或中爻, 來闡明和確定這一卦之義.”

리(離)의 괘사: “畜牝牛 吉”(암소를 기르는데 길하다).

왕필집교석(王弼集校釋): 유(柔)가 내괘에 처하고 정중(正中)을 밟고 있으니 암컷이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밖에서는 강하고 안에서는 순종하는 것은 소[牛]가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離)의 괘체는 유순한 것으로써 주효를 삼고 있다. 그러므로 강맹한 물건을 기를 수가 없고, 암소를 기르는 데 길하다.<sup>27)</sup>

비(比)의 괘사: “吉 原筮 元永貞 无咎”(길하다. 처음에 점하여 크고 오랫동안 바른 도리이니 길하다).

왕필집교석(王弼集校釋): 비(比)의 때에 처하여 본래 점하여 ‘허물 없음[无咎]’를 얻은 것은 오직 ‘크고 오래도록 바른 도리[元永貞]’였기 때문이다. 무릇 여러 무리가 서로 좇아 따르고 있으니 ‘크고 오래도록 바른 도리’가 아니면 흉하고 사악한 법이다. 만약 그 주효를 만나지 못하면 비록 ‘오래도록 바른 도리’라도 오히려 허물됨을 면하기 어렵다. ‘오래도록 바른 도리’로 하여 허물이 없게 한 것은 오직 구오(九五)이기 때문이다.<sup>28)</sup>

이(離)육이(六二)는 중정의 자리에 있는 육이(六二)를 주효로서 본 것이고 비(比)는 5음을 거느린 1개의 양효인 구오(九五)로서 주효를 본 것이다. 이(離)는 육이(六二)의 괘체가 유가 강으로 둘러싸인 모양에서 밖에서는 강하고 안에서는 순종하는 것인 빈우(牝牛)를 형상화 한 것이고 비(比)는 여러 무리를 거느리는 구오(九五)의 도리가 ‘원영정(元永貞)’해야 함을 가지고 괘사로 삼고 있다. 왕필의 주효론은 위의 인용된 이(離)와 비(比)의 주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주효의 위치에 따른 역학 관계를 의리으로써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왕필의 주효론은 주효로서 괄의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전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동인(同人)과 서함(噬嗑)의 단전과 왕필의 주해를 보자.

동인의 단전: “同人, 柔得位得中而應乎乾, 曰同人. 同人曰‘同人于野, 亨, 利涉

27) 樓字烈校釋, 『王弼集校釋』, 『周易注』, 368쪽. “柔處于內, 而履正中, 牝之善也. 外強而內順, 牛之善也. 離之爲體, 以柔順爲主者也. 故不可以畜強猛之物, 而吉於畜牝牛也.”

28) 樓字烈校釋, 『王弼集校釋』, 『周易注』, 260쪽. “處比之時, 將原筮以求无咎, 其唯元永貞乎! 夫羣黨相比 而不以元永貞, 則凶邪之道也. 若不遇其主, 則雖永貞而猶未足免於咎也. 使永貞而无咎者, 其唯九五乎!”

大川, 乾行也”(동인은 유(柔)가 자리를 얻고, 중을 얻어 건과 상응하니 이른바 동인이라. 동인에 말하길, 들에서 사람을 같이하는 것이 형통하며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건의 행함이다).

왕필집교석(王弼集校釋): 2는 동인의 주효가 된다. 들에서 사람을 같이 할 수 있어서 형통하며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2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이 하는 바이다.<sup>29)</sup>

서합의 단전: “柔得中而上行, 雖不當位, 利用獄也”(유가 중을 얻어 위로 행하니, 비록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나 옥사를 써도 이롭다).

왕필집교석(王弼集校釋): 5를 말한다. 능히 씹어 모아서 통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주효가 있으니, 5가 이것이다. ‘상행’은 가는 바가 앞으로 가는 데에 있는 것이니, ‘상행’이라고 말함은 모두 가는 바가 귀함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나 옥사를 씹어 해롭지 않다.<sup>30)</sup>

단전의 해석에서도 왕필이 주효의 개념을 사용하여 주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인에서는 육이(六二)가 하나의 음이면서 중효로서 괘주가 되며, 전체의 괘의를 표현한 단전의 ‘유(柔)’가 주효인 육이를 말함을 왕필은 지적하고 있다. 다만 ‘형통하다(亨)’ 등의 의미는 본래 상수역학에서 이(離)의 물상이지만 왕필은 상수를 배격하는 입장에 있어서 다소 해석에 장애가 있지만, 이 문제는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이라 생각된다. 서합에서는 양의 자리인 5에 음이 있어서, 비록 자리가 합당하지 않으나 중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옥사를 써도 해롭지 않는’ 주효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왕필은 괘의를 결정하는 것이 주효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실 어느 정도는 괘사와 단전의 내용과 합치되는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왕필의 주효론은 한계가 많다. 우선,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그의 「주역주」에서 주효임을 명기한 경우는 총 64괘 중 절반도 못되는 27괘(42.2%)에 불과하여, 주역 전반의 괘의를 주효로 풀어내기에는 스스로도 무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관(觀)卦와 돈(遯)卦에서는 각각 구오(九五)와 육이(六二)가

29) 樓字烈校釋, 『王弼集校釋』, 『周易注』, 322쪽. “謂五也。能爲齧合而通, 必有其主, 五則是也。上行, 謂所之在進也。凡言上行, 皆所之在貴也。雖不當位, 不解用獄也。”

30) 樓字烈校釋, 『王弼集校釋』, 『周易注』, 284쪽. “二爲同人之主 所以乃能同人于也, 亨, 利涉大川, 非二之所能也。是乾之所行。”

주요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괘사와 단전의 해석에서는 전혀 근거로 하지 않고 있어서, 중효를 주요로 인정하는 타당성에도 의문이 가고 있다.

## 2. 괘주의 효변의 유동

다산의 괘주론은 물론 역사(易辭)를 명확하려 함이지만 왕필처럼 괘사나 단전의 괘의를 밝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산의 괘주론은 효변과 연관하여 진술되므로 일단 다산의 효변론에 관하여 일별할 필요가 있다. 효변은 다산의 역리사법 중 하나로서, 시괘(蓄卦)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자의 『易學啓蒙(역학계몽)』에 의거하면 18변을 하여 6획이 그어지면 3변을 한 각 획이 천수(天數)가 세 개면 노양이 되고 지수(地數)가 세 개면 노음이 되어 그 획이 변효가 된다. 『역학계몽』에서는 1 변효부터 6 변효까지 인정을 하나, 다산의 역학에서는 건과 곤의 6획이 모두 변하는 경우에만 용구(用九)와 용육(用六)으로 점을 하고 그 이외에는 1 변효만을 인정한다.<sup>31)</sup> 그리하여 양획이 변(變)하면(變대신에 動을 쓰기도 한다) 음획이 되고, 음획이 변하면 양획이 되어서 하나의 다른 괘로 변하게 된다. 이 때 획이 변하기 전의 괘를 본괘라 하고 획이 변하여 만들어진 괘를 지괘(之卦)라 한다. 즉 시괘를 하여 건(乾)의 초구(初九)가 변효인 경우에는 양획인 초구가 변하여 음으로 되기 때문에 구(姤)가 지괘가 된다. 다산 역학에서 효변이 갖는 의미는 물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역 해석의 정밀성을 높이려는 데에 있다. 본래 다산은 한 대의 상수역학을 수용하여 그 역 해석의 기저로 삼고 있다. 이 경우 역 해석의 열쇠에 해당하는 것이 물상인데, 효변을 알아야 물상이 정확히 구해질 수 있다고 다산은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사(師)육오(六五)는 오획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괘 전체는 감(坎)이 된다. 사(師)육오(六五)의 효사는 “밭에 금수가 있거든 말을 받들음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으리라(田有禽 利執言 无咎)”인데, 이 효사의 해석에 활용되는 물상을 감(坎)에서 구한다는 것이다. 즉, 지괘인 감의 벽괘는 임(臨)과 관(觀)인데, 두 괘 모두 물상이 ‘밭(田)’인 곤(坤)을 가지고 있으며 지괘인 감은 ‘돼지’가 물상인 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밭에 금수가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sup>32)</sup> 그렇다면

31) 유문상, 『茶山 역학의 특성과 윤리적 함의』,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2002), 24-42 쪽 참조



괘주와 효변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일획이 변하면 괘 전체가 마침내 변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효사를 엮을 때 그 승강 왕래의 정은 모두 변한 상에서 취하게 된다. 그러나 괘의 주가 되는 효에 서는 그 동한 것을 붙들어 놓아서 변한 것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추이의 본 상만을 사용하여 이 획이 괘의 주가 된다는 것을 밝힌다.<sup>33)</sup>

효변을 하게 되면 그 변한 효, 즉 지괘에서 본괘와는 독립되어 추이에 따른 물상이 구해진다. 그러나 모든 효가 효변에 의한 물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효 중에는 효변을 따르지 않고 본괘의 추이에 따른 물상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괘의 주(즉, 괘주)가 되는 효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 다산은 이러한 현상을 ‘유동(留動)’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의 괘주론은 괘사나 단전의 괘의를 궁극적으로는 명확히 함이 목적이지만, 방법론에서는 괘주가 있는 효의 효사를 지괘에 나아가지 않고 본괘를 중심으로 하는 물상에서 구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의 해석에 정밀을 구한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대상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다산은 왕필의 중효에 의한 괘주 관념은 부정하고 일음, 혹은 일양의 효를 주효(다산에게는 괘주)로 삼는 견해는 수용한다. 그리고 그 외에 추이에 의하여 이동한 효를 역시 괘주로 인정한다. 먼저 일양의 효이며 추이를 한 효를 괘주로 삼아 주해한 예를 고찰해 보자. 겸(謙)구삼(九三)의 효사 중 일부는 “공로가 있고 겸손함이다[勞謙]”이다. 다산의 역해를 보면,

이것은 겸(謙)이 곤(坤)으로 간 것이다. 괘 전체를 통하여 보면 감(坎)이다(다섯 음이 일양을 끼고 있다). 감(坎)은 공로괘이니(「설괘전」의 글) 공로가 지극한 것이다. 복(復)으로부터 옮겨와서는(1이 3으로 갔다) 진(震)으로 떠들지 않고(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박(剝)으로부터 옮겨와서는(상이 3으로 갔다) 높

32) 그 외에 ‘말을 받들음이 이롭다’를 풀어보면, ‘말’은 벽괘인 臨괘의 하괘인兌에서 그리고 ‘받들음’은 벽괘인 觀을 大體로 보면 艮이 되는데, 바로 艮의 물상인 손(手)에서 나온다.

33) 『與猶堂全書』 2-37-308, 『周易四箋』, 讀易要旨, “一畫既動, 全卦遂變, 故聖人之撰爻詞, 其升降, 往來之情, 皆取變象. 然於卦主之爻, 又爲之留其所動, 不逐其變, 而專用推移之本象, 以明此畫之爲卦主.”

은 자리를 사양하고 비천한 데에 거하니(하괘는 백성이다) 공로가 있으나 능히 겸손한 것이다. 3은 괘주가 된다. 그러므로 그 본상을 취한다.<sup>34)</sup>

겸(謙)의 3획이 동하여 곤(坤)으로 갔지만, 3이 괘주이기 때문에 효변을 취하지 않고 겸괘를 중심으로 물상을 취하게 된다. 이 때 겸괘는 일양지괘(一陽之卦)의 벽괘인 복(復)과 박(剝)으로부터 온 괘이다. 즉 복(復)으로부터는 초(初)가 3으로 간 것이고, 박(剝)으로부터는 상(上)이 3으로 간 것이다. 다시 말해 겸괘가 된 것은 벽괘로부터 3이 움직여 온 것이기 때문에 3이 괘주가 되며 괘주는 효변을 하여 간 상을 취하지 않고 본괘의 추이를 따르는 ‘유동’을 한다. 그러므로 겸은 3이 동하였다 하더라도, 3이 동하여 간 곤에서 물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괘의 추이에 의한 상을 취하므로 일양지괘(一陽之卦)의 벽괘인 복과 박으로부터 괘의 상을 취하게 된다. 다음은 추이에 의해 이동한 효를 괘주로 삼는 경우를 보자. 익(益)초구(初九)의 효사 중 일부는 “써서 크게 짓는 것이 이롭다(利用爲大作)”이다. 다산의 역해를 보면,

이것은 익(益)이 관(觀)으로 간 것이다. 괘는 비(否)에서 온다(1이 4로 갔다). 곤(坤)의 밭을(하괘는 본괘 곤) 손(巽)인 쟁기로(상괘가 지금은 손) 경작하면 곡식의 종자가 떨어져서(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진곡(震穀)이 살아나니(「설괘전」에 진은 씨앗뿌리고 심는 상이다) 동쪽에서 농사짓는 상이다(진은 동쪽이다). 손은 곧 이로우니 되고(손은 이익에 가까운 상) 진은 짓는 것이니(「설괘전」에 진은 짓는 것이다) 크게 짓는 것이 이로운 것이다(하괘 일강이 큰 것이 된다). 초(初)는 괘주이므로 그 본상을 말한 것이다.<sup>35)</sup>

익(益)의 초(初)가 동하면 지괘인 관(觀)이 된다. 그러나 역시 지괘를 취하지 않고 본괘인 익(益)의 추이를 따른다. 익은 벽괘인 비(否)의 4가 1[初]로 간 것이기

34) 『與猶堂全書』 2-39-350, 「周易四箋」, 謙九三, “此謙之坤也. 通卦爲坎(五陰夾一陽), 坎爲勞卦(說卦文), 勞之至也. 自復而移(一之三), 不以震明(不自伐), 自剝而移(上之三), 辭尊居卑(下族民), 勞而能謙也. 三爲卦主, 故取其本象.”

35) 『與猶堂全書』 2-41-402, 「周易四箋」, 益初九, “此益之觀也. 卦自否來(一之四). 坤之土田(下本坤), 耕以巽耒, 則嘉種有隕(剛自天而落), 震穀以生(說卦震爲稼), 東作之象也(震爲東). 巽則爲利(近利市), 震以作之(說卦震爲作), 利用大作也(下一剛爲大). 初爲卦主, 故言其本象.”

때문에 1이 괘주가 되고 유동을 한다. 비의 4가 1로 간 것은 위치가 비록 내려간 것이지만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있다가 양의 자리로 간 것이니 역례에 의하면 허물이 없는 것이 된다. 더구나 괘의 움직임은 주도하는 괘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산이 괘주의 경우에 그 본상으로서 역해를 한 것은 고경(古經)에 나타난 서법에근거를 두고 있다. 본래 『춘추좌씨전』 등의 고경에 수록된 점단에 관한 내용에서 효변에 관한 증거를 분류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형태상 효변을 취하기는 하나 본괘상에 의거하여 역해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괘의 상과 효변을 한 지괘의 상을 절충한다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지괘의 물상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이 중 본괘상에 의거한 역해를 괘주 관념으로서 풀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의 괘주는 이와 같이 효변의 예외 기능이 있으나,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함(咸)괘는 비(否)에서 상(上)이 3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구삼(九三)이 괘주이다. 따라서 본괘상에 의한 역해를 해야 하나, 다산은 구삼의 효사 “함기고(咸其股)”를 다음과 같이 역해한다.

이것은 함이 취괘(萃卦)로 간다. 취는 관괘에서 온다(상이 4로 간다). 유(柔)가 아래로부터 올라와(4기 상으로 간다), 그 손(巽)의 넓적다리를 느껴보는 것이다.<sup>36)</sup>

구삼(九三)이 괘주이기 때문에 유동이 적용되어야 하나, 다산은 효변을 하여 간 취괘를 중심으로 물상을 구하고 있다. 동인(同人)괘는 구(姤)의 초(初)가 2로 간 것이기 때문에 육이(六二)가 괘주가 된다. 그러나 다산은 다음과 같이 주해한다.

이것은 동인이 건으로 간다(지금 순수한 건이다). 건은 곧 아버지요(설괘문) 아버지는 무리의 종실이다(뜻이 아래에 보인다). 종족이 서로 모여(상하가 건) 서로 이(離)에서 보니(하괘가 본래 이) 종실에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다(‘동’은 회견이다).<sup>37)</sup>

36) 『與猶堂全書』 2-40-382, 「周易四箋」, “此咸之萃也. 萃自觀來(上之四). 柔自下升(四之上), 感其巽股.”

37) 『與猶堂全書』 2-38-344, 「周易四箋」, “此同人之乾也(今純乾). 乾則爲父(說卦文) 父黨宗也(義見下). 宗族相聚(上下乾) 相見乎離(下本離) 同人于宗也(同者會見也).”

육이(六二)가 괘주이기 때문에 유동을 하여 본괘상에서 물상을 구해야 되나 “서로 이(離)에서 보니”만 제외하고는 모두 지괘상인 건(乾)에서 물상을 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송(訟)괘는 돈(遯)에서 3이 2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구이(九二)가 괘주가 된다. 역시 지괘인 비(否)가 아닌 본괘인 송괘를 기준으로 역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다산은 이 괘에서도 “불극송(不克訟)”을 주해하기를 “비(否)는 곧 아래가 곧이니 곧이 건을 이길 수 있는가?”(否則下坤 坤可克乾乎)라고 하여 본괘가 아닌 지괘상으로써 주해를 하고 있다. 풍(豐)괘에서는 괘주인 구사(九四)의 효사 “豐其蔀 日中見斗 遇其夷主”의 주해에선 앞부분인 “풍기부 일중견두(豐其蔀 日中見斗)”는 괘주의 기능에 의거 유동에 따른 해석을 하나 “우기이주(遇其夷主)”는 지괘에 나가서 물상을 구하고 있다. 이렇듯 괘주가 갖는 유동의 기능은 다산의 역 해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괘에 따라서는 배제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필의 주효론이 괘의를 체계적으로 밝히는데 무리가 있는 것처럼 다산의 괘주론 역시 효변에 있어서 물상의 정밀한 구사에 크게 기여하지만 괘주가 본연의 기능인 유동을 모든 괘에 일관되게 구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IV. 결론

왕필의 주효론은 주효의 관념을 사용하여 괘의, 즉 괘사와 단전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 있으며, 다산의 괘주론은 괘주의 관념을 사용하여 효사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효론과 괘주론은 술한 괘상 중의 일부를 표현한 역사(易辭)가 그나마 난해하고 상징적인 것이 많아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효론과 괘주론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관념적으로는 기존의 효위론이 5효를 주체로 삼은 것에서 탈피하여 효의 실제적인 주도적 역할과 기능에 따라 주효(괘주)를 설정하여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공통점이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중대한 것을 다스리는 것은 과소한 것’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역학 관계로 풀이하여 역을 인문 사회적 경지로 승화시키고 있는 점에서 역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관점은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왕필은 괘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 중효나 일음, 혹은 일양의 효를 주효로 보는 정태적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다산은 일음 혹은 일양의 효를 괘주로 보는 왕필의 견해를 수용하고, 거기다가 추이에 의해 효가 이동하는 과정을 포착하여 괘주로 삼는 동태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왕필의 주효론은 효변을 고려하지 않은 괘의만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다산의 괘주론은 효변의 과정에서 예외되는 본상을 따로 구하는 것이니 만큼 ‘추이’와 ‘물상’으로 본괘상의 의미를 구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본래 괘·효사인 역사(易辭)를 풀어내는 방법을 괘상, 효상, 음양승강, 효위, 절구, 고중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바로 왕필의 주효론과 다산의 괘주론은 주효와 괘주의 관념을 사용하여 주역을 제대로 풀이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부이다. 물론 주효론과 괘주론이 이론 구성과 그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상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주역의 참된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의 공과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文淵閣四庫全書』; 『易經集成』; 『王弼集校釋』; 『易經集成』; 『與猶堂全書』; 『周易』.

高懷民(저)/신하령·김태완(공역), 『상수역학』. 서울: 신지서원, 1994.

유문상, 「茶山 역학의 특성과 윤리적 함의」. 한국고원대학교 博士學位論文, 2002.

윤태현, 「京房易의 研究」. 동국대학교 博士學位論文, 2000.

이세동, 「朱子 <周易本義> 研究」.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1996.

이원태, 「王弼과 伊川의 義理易 비교 연구」.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8.

임채우, 「王弼 易 哲學 研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 국 문 요 약

주역의 괘·효사는 전승 과정에서 술한 가감이 이루어지면서 매우 난해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괘·효사의 정확한 의미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주효론 괘주론은 그러한 시도들 중의 하나이다. 주효론은 왕필에 의하여 체계화되었으며, 그의 이론의 특징은 중효와 하나의 음효와 양효 중에서 주효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왕필 자신은 주역 교석에서 주효 관념을 전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스스로 주효론에 의한 괘의 해석이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괘주론은 다산에 의하여 효변과 관련하여 제창된 것이다. 다산 역학에서 효변을 하면 지괘로 나가 물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괘주에 해당되는 효는 지괘의 상이 아닌 본괘상에서 물상을 구하게 된다. 다산이 괘주로 삼는 기준은 벽괘에서 음양승강의 원리에 의하여 이동한 획이나 하나의 음효와 양효가 해당된다. 산의 괘주론 역시 괘주에 대한 관념 설정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투고일 : 2007. 9. 27.

● 심사완료일 : 2007. 11. 28.

● 주제어(keyword) : 중괘(hexagram), 주효(the principal line of hexagram), 음양(Yin and Yang), 효위(hexagram-line), 괘변(transformation)